

김정은 시대 북한 시의 이미지 양상

이지순(북한대학원대학교)

이 글은 김정은 시대에 발표된 서정시의 이미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김정은의 외연인 ‘발걸음’ 이미지가 어떻게 집중되고 확산하는지 고찰하며, 다음으로 젊음과 열정의 이미지가 어떻게 혁명의 세대 교체를 문맥화하는지 살펴본다.

〈발걸음〉 노래와 이미지는 집중적으로는 김정은을 상징하는 지표이다. 자연스럽게 인민 대중 사이에 스며든 발걸음 이미지는 길의 이미지와 중첩되면서 혁명혈통의 연대기로 구성되는 과정을 지닌다. 후계구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발걸음 이미지는 통시적으로는 혁명 역사의 축과 융합하며, 공시적으로는 혁명적 동지애나 일심단결로 표상된다. 그리고 발걸음 이미지가 일상의 작고 소소한 영역으로 삼투됨으로써 전 국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젊음과 열정의 이미지는 김정은에게 청년 김일성 이미지의 전유로 나타난다. 이는 전대 지도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체제 전환의 불안을 은폐하고 안정적이면서 공적인 승인을 이끌고자 한 이미지 전략이다. 젊음의 이미지가 호명하는 청춘세대는 천리마기수, 3대혁명소조와 같은 영웅적 형식의 오마주이지만 과학, 기술, 지식 담론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변별된다. 그러나 북한의 실제 현실이 아니라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형상을 그린다는 점에서 여전히 북한 문학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련의 이미지들은 공동체의 언어 습관과 해석에 영향을 끼치고 체제 지향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선전 장으로 기능한다. 또한 3대 후계세습에 대한 인민의 정서적 동의를 견인하고, 새로운 신화 만들기과 중첩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문제 제기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모든 예술은 어느 정도 프로파간다(propaganda)가 있다고 말한다면, 히틀러는 예술이 프로파간다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가 프로파간다를 오락물로 위장했다면, 북한 문학은 프로파간다를 전면에 드러낸다. 북한 문학은 오웰과 히틀러(Adolf Hitler)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다. 북한 문학은 역사와 신화를 쓰기 때문이다.

‘김정은’ 하면 김일성의 복제된 이미지, <발걸음> 노래, 젊은 나이에 오른 최고 지도자 등이 떠오른다. 북한의 문화 전반은 프로파간다의 전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012년은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에 대한 선전이 본격화된 해이자, 새로운 신화 쓰기가 가시화된 해이다.

김정은은 2009년 후계자로 낙점된 이후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면서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김정은을 추대함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되었다. 북한은 2009년부터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 <발걸음>과 ‘김정은 위대성 교양 자료’ 등이 보급되기 시작했다.¹⁾ 2011년 9월 초에 열린 상해예술박람회 국제예술전에 김정은 초상화를 출품함

1)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2012), 7쪽.

으로써 대외적으로 김정은이 선전되기 시작했다.²⁾

이 기간에 서구 언론에는 김정은으로 추정되는 초상화 한 점이 소개되었다. 2010년 12월 8일 캐나다 매체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지는 김정은 초상화로 추정되는 유화 한 점을 전면에 실었다.³⁾ 2011년 북한이 공식적으로 출품한 김정은의 초상화보다 2010년 초상화가 신화 만들기에 더 가깝다. 2011년 초상화가 인물을 정 중앙에 배치한 전형적인 초상화라면, 2010년 초상화에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초상화란 외모의 충실한 기록을 전제로 하지만 이 유사성의 요구가 초상화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때로는 화가의 이상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⁴⁾ 북한의 문예사전은 “인물의

2) 『조선일보』, 2011년 9월 22일.

3)



변호사 퍼시 톱(Percy Toop)이 라신 시의 라진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은 북한 체제가 김정은을 앞으로 어떻게 선전해나갈지에 대한 단서를 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림은 김정은이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알려진 스위스 베른의 인터aken으로 보이는 호수를 배경으로 한다. 그림 속 청년의 모습은 청년기의 김일성과 김정일을 묘사하는 분위기와 구도 배치에서 유사함을 보인다. 캐나다 일간지인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지는 당시 언론에 비친 김정은과 크게 비슷하지는 않아도, 일반 학생을 이룬 구도로 제작하지 않는 관행으로 비추어 김정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림 속 청년이 김정일인지 김일성인지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있으나, 이 매체가 6명의 북한 전문가에게 그림을 보내 의견을 타진한 결과 한 명만이 김정은이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 논문은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보다 그림이 만들어내는 서사가 김정은 신화 쓰기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Mark MacKinnon, “North Korea’s Kim Jong-un: Portrait of a leader in the making,” *the Globe and Mail*, Dec. 8, 2010.

4) ‘화상(畫像)’, ‘도상(圖像)’, ‘진상(眞像)’, ‘진영(眞影)’, ‘영정(影幀)’, ‘유상(遺像)’, ‘상(像)’, ‘진(眞)’, 이 용어들은 모두 초상화를 가리키는 다른 말이다. 초상화를 표현하는 여러 말 중에는 단순히 상을 그렸다는 의미로 정의하는 다분히 객관적인 단어가 있는 반면, ‘그러지는 대상의 참된 모습’이나 ‘참된 그림자’와 같이

외모, 얼굴, 옷차림 등 외부적 특징을 그리는 것”을 “초상 묘사”라 일컫는다. “초상 묘사는 성격 창조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등장인물의 개성적 특징을 보여주는 데서 중요한 의의”⁵⁾를 지니는 것으로 중시된다.

피스(Charles Sanders Peirce)는 기호를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의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삼분법에 의하면 초상화는 기호와 대상 간의 물리적인 특질의 유사함에 의해 대상을 지시하는 도상기호가 된다. 도상적인 기호는 리얼리티와 반드시 비례할 필요는 없으며 그 유사성은 정도의 문제로 볼 수 있다.⁶⁾ 그렇기에 비록 2010년 초상화 속 청년이 오늘날 우리가 매체에서 보아온 김정은과 체격 면에서 다르다 할지라도 북한이 만들어나가려는 새로운 신화의 서사를 가늠하게 해줄 수 있다. 북한의 선전기구는 김정은의 통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이야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획득하는 설득성이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인 믿음과 북한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우연적인 것이든 의도적인 것이든, 2010년 말에 알려진 김정은으로 추정되는 초상화는 김일성의 이미지와 유사성을 보인다. 이는 2012년 현시점에서 문학적 맥락과 일정 부분 부합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김정은 체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학예술이 전면에 내세운 창작원리는 수령형상창조 원칙이다. 수령 형상에서 실천적 경험을 쌓아 온 작가들

화가가 의도했고 그려지는 인물이 원했을 초상화의 의미와 모습을 강조하는 이름도 있다. 즉 초상화는 그려지는 대상의 또 하나의 진짜 모습, 그림자와 같이 실체와 짝이 되는 그 어떤 것으로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초상화 초본』(서울: 열린박물관, 2007), 36쪽 참조.

5) 『문예상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704쪽.

6) 강태희, 『현대미술의 또 다른 지평』(서울: 시공사, 2000), 138쪽.

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데서 수령의 후계자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의 수령형상 창조의 원칙을 기반으로 김정은의 위대성 형상 창조가 본격화될 것을 예고하였다. “이제 첫걸음을 떼데 불과”한 김정은 형상화는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과 꼭 같으신 위풍당당한 모습, 영채도는 안광, 무게 있는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ροι이신 전설적 위인으로서의 품모”를 중심으로 “수령형상의 고유한 생리를 구현”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⁷⁾

이 글은 2012년 『조선문학』에 발표된 서정시를 중심으로 김정은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체제 신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문맥이 재구성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이전 시대와 다른 김정은 시대의 문학적 변별성을 살펴볼 것이다.

2. ‘발걸음’ 이미지의 집중과 확장

올해 초, 『로동신문』은 <발걸음> 노래를 인민군 군인들이 제일 먼저 불렀다고 하면서, “가사와 선율도 좋았지만” “화폭처럼 그려보여 주는 위인상이 마음에 꼭 들어 인민들은 너도나도 따라 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걸음> 가사 중 “2월의 정기 뿌리며”, “2월의 기상 떨치며”, “2월의 위업 받들어” 등을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계승의 불변성”, 김정일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려는 김정은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음악으로 대

7) 김려숙, “피끓는 심장으로 선군혁명문학의 새로운 포성을 울리자,” 『조선문학』, 제3호(2012), 23~24쪽.

변”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단순히 김정은의 위인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유훈을 담았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⁸⁾

수사가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반향을 일으켜야 한다. 효과적인 수사는 대체로 발신인과 수용자가 함께 만든다.⁹⁾ 만들고 유포되는 과정에서 <발걸음> 노래는 김정은 신화가 제작될 여건을 마련했다. 언어는 생각의 방식을 조직화한다. 텍스트 생산과 해석의 인식 과정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며, 사회적 관례와 관계된다.¹⁰⁾ 공동체의 언어 습관은 해석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며 작용하기 때문이다.¹¹⁾ 2009년부터 보급된 노래는 인민의 의식에 스며들었으며 ‘발걸음’은 보통명사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었다. ‘발걸음’은 김정은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선전기구가 ‘발걸음’ 단어에 부여한 새로운 관점은 “고난을 박차고 시련을 이겨내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감과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려는 전투적 기백과 억척의 신념”을 보여주는 “박력 있는 속도감과 미래지향적인 성격”¹²⁾에 있다.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의 이미지가 ‘발걸음’ 하나에 응축되는 것이다. 즉 노래를 통한 유포는 ‘발걸음’이 단순히 수사적 기교로 머무르지 않게 하며 능동적으로

8) 한충혁, “찬란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보여주는 명곡 노래 <발걸음>을 부르며,” 『로동신문』, 2012년 2월 19일.

9)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Nicholas Jackson O'Shaughnessy), 『대중을 유혹하는 무기 정치와 프로파간다』, 박순석 옮김(서울: 한울, 2009), 107쪽.

10) Norman Fairclough, *Language and Power*(London: Longman, 1989), p. 19.

11) A. P. Foulkes, *Literature and Propaganda*(New York: Methuen, 1983), p. 37.

12) 권선철, “<발걸음>의 메아리는 우렁차고 환희롭다,” 『조선문학』, 제6호(2012), 26쪽.

의미를 창조하게 한다. ‘발걸음’은 김정은 체제 담론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지적 차원이 아니라 단어의 사용 조건이다.¹³⁾ 이제 ‘발걸음’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가 아니다. 체제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상징이 되었다. 더욱 선명한 울림을 갖도록 단어의 쓰임새를 통제할수록 이데올로기적 편향성도 커질 것이다. 프 로파간다의 진짜 힘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면서 권력 상징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¹⁴⁾ 이런 점에서 보자면 <발걸음> 노래는 자연스럽게 김정은의 이미지를 인민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3대 후계구도에 대한 인민의 정서적 승인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발걸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유포되면서 집중과 확장을 어떻게 반복하는지 보도록 하자.

아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욱소리
 그 소리에 울려오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그 자욱소리 노래에 실려
 저 생각 깊은 개선문에서 울려오는가
 그 발자욱소리 만민의 인생사에 실려
 주체사상탑 군상아래서
 쿵쿵 메아리쳐오는가

— 김재원, <영원한 메아리> 부분¹⁵⁾

13) Norman Fairclough, *Language and Power*, p. 25.

14) A. P. Foulkes, *Literature and Propaganda*, p. 3.

불변하는 태양의 자리길처럼
수령님 걸으신 길이면
수천리라도 수만리라도 다 이어가시는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동지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 빛내이신 길이어

— 리태식, <수령님과 함께 걸으신 길> 부분¹⁶⁾

김일성-김정일과 연관된 ‘발걸음’ 이미지는 혁명 혈통의 정당성으로 확장된다.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욱소리”가 “쿵쿵 메아리쳐” 온다는 표현을 보면, <발걸음> 노래의 ‘발걸음’이 ‘발자욱’으로, ‘척척’이 ‘쿵쿵’으로 변형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발걸음 내지 발자욱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 중 하나는 ‘길’이다. “수령님 걸으신 길”을 이어가는 김정일은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 빛내이신 길”과 같이 연속선으로 표현된다. 길의 연속성은 시간의 연대기를 포함한다.

바흐젠(Mikhail Bakhtin)은 문학작품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 사이의 내적 연관을 ‘크로노토프(chronotope)’라는 용어로 칭한다. 문학예술의 크로노토프는 공간적 지표와 시간적 지표가 용의주도하게 짜인 구체적 전체로서 융합된 것이며, 이 두 지표들 간의 융합과 축의 교차가 예술적 크로노토프를 특징짓는다. 크로노토프의 주된 범주는 시간이며 문학작품 내의 인간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간 형상은 언제나 크로노토프적’이다.¹⁷⁾ 혁명 역사의 시간적 연

15) 김재원, <영원한 메아리>, 『조선문학』, 제5호(2010).

16) 리태식, <수령님과 함께 걸으신 길>, 『조선문학』, 제7호(2010).

17) 미하일 바흐젠(Mikhail Bakhtin),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외 옮김(파주: 창작과비평사, 1998), 260~261쪽.

대기와 길이라는 공간적 지표의 결합은 바흐쩨이 구분한 ‘수사적 전기’의 양식과 유사하다. 수사적 전기는 공적·정치적 행위의 찬양이거나, 공개적인 해명으로서 삶의 크로노토프이다.¹⁸⁾

‘발걸음’과 ‘길’의 수사학은 혁명 역사의 계승을 공개적으로 정당화하고 해명하는 광장의 연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역사적 시간으로서의 김일성과 김정일은 공간적 지표로서의 혁명의 길과 연계됨으로써 김정은의 외연이라 할 수 있는 ‘발걸음’ 이미지와 융합한다. 시인의 수사는 시인 개인의 표현이 아니다. 국가적 통제와 평가에 전적으로 종속된 수사는 ‘혁명 역사의 정당화’라는 점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역사를 가시화하고, 공적 총체성으로 신화를 쓴다는 점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광장의 역할을 대체한다. 역사적 시공간의 축이 후계구도와 융합하여 만들어진 이미지가 ‘발걸음’과 ‘길’인 것이다.

광장을 쩡쩡 구르며 내닫는 발걸음 발걸음
저 철의 대오를 사열하시는 장군님의 품으로
흘러간 우리 당의 력사
흘러갈 우리 당의 력사가 달려와 안기나니

— 김덕선, <영광의 노래 드리노라> 부분¹⁹⁾

‘발걸음’은 과거로서의 “흘러간” “당의 력사”이자 “흘러갈” “당의 력사”이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것은 “발걸음”이다. 발걸음은 “쨍쨍”이라는 의성어가 보여주듯 강력한 힘으로 나타난다. 이 시에서 강력한

18) 위의 책, 316~317쪽.

19) 김덕선, <영광의 노래 드리노라>, 『조선문학』, 제10호(2010).

발걸음 소리의 주체는 “철의 대오”, 즉 군대다. 선군의 진군길이 ‘발걸음’으로 나타나고, 역사로 부상한다. 즉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 역사는 김일성의 길/발걸음, 김정일의 길/발걸음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발걸음 이미지는 김정은에게만 집중되지 않는다. 역사적 시간으로 확장되는 발걸음 이미지는 미래의 주역으로서 후계구도를 정당화하는 이미지가 된다. 다음의 시는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배움의 천리길

… (중략) …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

… (중략) …

오늘도 행군길은 끝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척척 발걸음 올리는

조선의 행군길은 끝없이 이어진다

걸음마다 대고조의 진군으로 이어지며

강성대국 대문으로 향한

그날의 천리길은 끝나지 않았다.

— 허수산, <위대한 행군> 부분²⁰⁾

“배움의 천리길”²¹⁾은 12세였던 김일성이 조국 광복을 위해서는 조

20) 허수산, <위대한 행군>, 『조선문학』, 제3호(2011).

21) 김일성과 김정은이 연결될 고리 중 하나는 ‘배움의 천리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의 해외 체류가 적극적으로 김정은 역사에 편입된다면 배움의 길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선을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 김형직의 뜻에 따라 만주에서 평양까지 14일 동안 천리길을 걸었다는 노정을 뜻한다. “장군님의 강행군”은 김정일의 인민을 위한 헌신의 노정을 뜻한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행군길은 김일성 - 김정일의 ‘길’이 미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울리는 것은 “척척척 발걸음”이다. 그 발걸음이 이어진 종착점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이다. 행간 사이에 있는 발걸음의 주체는 김정은이다. 즉 ‘척척척 발걸음’이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을 잇기 때문이다. <발걸음>이 처음에 노래로 나왔을 때는 김정은을 상징하는 외연으로 집중되었다면, 혁명 역사의 연장선에서 혈통으로 확장된다. 2012년 초기, 김정일 추도사에서 이러한 확장적 표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장군님은 절대로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 (중략) …

김정은 동지의 거룩한 발걸음에서

장군님의 숭엄한 발자국이 새겨집니다

… (중략) …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결사옹위의 성벽을 쌓고

그이의 발걸음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은

천지를 진감합니다

—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경전에> 부분²²⁾

22)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경전에>, 『조선문학』, 제1호(2012).

발걸음의 선대 지도자와의 연계는 ‘길’의 이미지이다. 김정일의 인민을 위한 헌신의 삶은 멈추지 않은 걸음으로 형상화되었다. 김정은의 ‘발걸음’에 새겨지는 것은 김정일의 발자국이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겹친다는 것은 두 사람의 목표 지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인민은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발걸음 따라’ ‘결사옹위의 성벽을 쌓고’ 전진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서진명의 <비료여 비료여>²³⁾의 “장군님의 그 발자국소리 들려주며”와 같은 표현이나, 송정우의 <그이의 모습을 내 보았노라>²⁴⁾의 “장군님과 함께 선군의 길 걸으시며” 등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행보를 겹쳐서 보여주는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따라나서는

주체위업완성의 성스러운 행군길로

척척척 발구름 높이 내 가리라

영생의 별로 빛을 뿌리는

1930년대 청년전위들의 모습으로!

1970년대 열혈일군들의 모습으로!

— 김정삼, <한모습으로> 부분²⁵⁾

“주체위업완성”은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계보이다. 그 계보는 1930년대 청년전위가 김일성을 결사옹위하고, 1970년대 열혈일군들이 김정일을 결사옹위했듯이 시적 화자는 오늘날 김정

23) 서진명, <비료여 비료여>, 『조선문학』, 제2호(2012).

24) 송정우, <그이의 모습을 내 보았노라>, 『조선문학』, 제3호(2012).

25) 김정삼, <한모습으로>, 『조선문학』, 제4호(2012).

은을 결사옹위하리라 다짐한다. 1970년대가 키워드로 떠오른 것은 2010년이였다.

3대 후계구도가 공식화된 2010년 공동사설에서 문학예술 부문에 주문한 것은 “21세기의 혁신”과 “1970년대식 창조방식”이었다. 21세기 혁신은 기술과 과학의 강조로 이후 ‘새 세기 산업혁명’으로 연결된다. “경공업제품들이 련이어 쏟아져나오던 시대, 세계적인 식량위기에도 끄떡없이 대풍을 안아오던 1970년대”²⁶⁾에서 보는 것처럼 1970년대식 창조방식은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쇄신과 관련된다. 반면에 문학예술에 요구된 1970년대식은 후계구도와 연관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1970년대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확립되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문학으로 확고히 전변”된 때이며, “수령형상문제를 문학의 근본핵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옹게 해결”한 때이기 때문이다.²⁷⁾ 그렇기에 1970년대는 경제적 쇄신의 연대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고히 뿌리내린 시기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의 ‘발걸음’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인민의 지향은 1970년대처럼 확고한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1970년대에 대한 회고적 시는 당비서와 인민의 관계를 그리는 주정웅의 연시 <추억에 실린 못 잊을 나날: 1970년대를 회고하여>²⁸⁾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시에 의하면 1970년대는 “우리 모두는

26) “김철의 호소 따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총진군 앞으로!,” 『로동신문』, 2010년 1월 12일.

27) “당창건 65돐을 뜻 깊게 맞는 자랑 안고 선군시대 문학작품창작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자,” 『조선문학』, 제10호(2010), 5쪽.

28) 주정웅, <추억에 실린 못 잊을 나날: 1970년대를 회고하여>, 『조선문학』, 제10호(2012).

하나같이/생각도 실천도 그 본새로” 하며 “일편단심을 꽃비단같이 정
히 수놓”는 시절이며, “당비서에게 배정된 새 아빠뜨”는 “장군님 뜻으
로 살며 일하며/좋은 것은 인민에게 양보하는” 인정어린 시대로 그려
진다. 유일적 영도체계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1970년대는 2012년의
규범적 시간이다.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197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이
러한 시적 문맥은 북한이 꾸준히 양산해내는 미래 담론들과 21세기
침단에 대한 욕구에 비추어 퇴행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시절에 대한 회고적 분위기는 혈연 승계에 대한 긍정성과 경제성과를
서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김정은의 이미지가 ‘발걸음’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러한 발걸음이
혁명혈통 외에 확산되는 곳은 어디인가? 김정은과 일심단결로 뭉칠
인민은 “총대마다 포신마다 새겨들고/척척척 …… 용기백배 나아가는/
무적필승의 열병대요”²⁹⁾이다. 김정은 체제 초기의 ‘발걸음’ 이미지와
함께 동지적 결속으로 일심단결할 표제어로 선택된 것은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이다. 군민일체, 일심단결은 인민의 아버이를 잃은 슬픔
을 같이 나누고 같이 이겨나가는 전우애로서 표상된 슬로건인 것이
다.³⁰⁾ 그리고 김정일 사망 시 “우리 모두 팔을 끼고 어깨견고 이 준엄
한 시련을 이겨냅시다”라고 김정은이 선포했다고 정리됨으로써 “력
사 앞에 선포하신 정치리념, 정치신조”³¹⁾로 개념화되었다. 즉 ‘발걸
음’과 함께 주체혁명위업의 완수와 계속혁명, 일심동체의 상징적 슬
로건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29) 허수산, <울려라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여>, 『조선문학』, 제5호(2012).

30) 이 슬로건이 나온 것은 올해 정초에 105땅크사단을 방문한 김정은이 병사들과
스스럼없이 팔짱을 끼고 안던 모습에서 전우애로 표현되었다. “(정론)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로동신문』, 2012년 1월 21일 참조.

31) “팔을 끼고 어깨 견고,” 『로동신문』, 2012년 4월 10일.

김정순의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³²⁾를 보면, 혁명과 동지를 동일하게 보는 김일성의 혁명 초행길의 맹세는 “너는 김혁/나는 성주”로 표현되고, 동지애로 시작한 혁명을 동지애로 완성하려 한 김정일은 “너는 허담/나는 정일”로 표현된다. 그리고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하는/전우가 될 것입니다”라는 김정순의 선언은 김일성 - 김정일을 이어받는 ‘동지애’이며, 그것은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걸어갈 길이 된다.

중대지휘관들과 전사 임무는 서로 달라도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할
 하나의 심장만이 맥박치는 곳
 위대한 령장의 발걸음에 맞추어
 척척적 영광의 한길로만 나아가는 중대
 … (중략)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운명을 같이할 전우로 산다

— 조광철, <나의 중대> 부분³³⁾

혁명적 동지애, 일심단결의 힘은 ‘발걸음’의 전진적 이미지와 결합해 내부의 결속과 연대의식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발걸음’은 미래를 향해 진군하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내포한다. 지속적으로 김정은을 발걸음으로 은유하는 이유는 은유가 가지고 있는 비유적

32) 김정순,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조선문학』, 제8호(2012).

33) 조광철, <나의 중대>, 『조선문학』, 제8호(2012).

속성 때문이다. 직설적 의미 이상의 어떤 것, 은유가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담화에 끌어들이면서 아무런 증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는 추가적 의미에서 비유적 긴장이 생성된다.³⁴⁾ 미래 비전의 제시는 ‘발걸음’의 음향적 효과와 더불어 낙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에 김정은 형상화에 서 중요 상징으로 관습화되는 것이다.

보통명사였던 ‘발걸음’이 김정은의 상징이 되면서 그것의 의미는 일상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김정은의 발걸음과 보폭을 맞추는 것은 “사상도 뜻도 신념도 의지도 숨결도 오직 하나가 되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도도히 전진하는 일심단결의 모습을 력사우에 새겨” 나가는 행위가 되며, 이는 “혁명력사의 거창한 진폭”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다.³⁵⁾ 게다가 <발걸음> 노래를 직접 연상시키는 “척척척”은 군대 행렬의 행진의 울림을 자아냄으로써 시가 지향하는 바가 미래의 진군임을 유추하게 한다. 이는 행진이라는 시각적 효과와 열을 맞춘 집단에게서 울려 나올 수 있는 청각적 효과까지도 유발함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지향하는 집단주의, 일심단결 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발걸음’ 이미지는 군인뿐만 아니라 인민의 생활까지 확장된다.

비록 크게 울리진 않아도
우리 가정에 사랑이 깃드는 소리
얼마나 정답고 아름다운가

34) 올리비에 르불(Olivier Reboul), 『언어와 이데올로기』, 홍재성·권오룡 옮김(서울: 역사비평사, 2003), 156쪽; 이지순, “북한 서사시의 김정은 후계 선전 양상”(『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2012), 236쪽.

35) 권선철, “<발걸음>의 메아리는 우렁차고 환희롭다,” 25쪽.

날마다 기다려 맞이하는 행복이
나에겐 얼마나 큰 것인가
… (중략) …
남편의 사색 앞에선 조심스러워져도
이들애의 웃음 앞에선 못내 가벼워져도
나의 발소리도 보란 듯이 맞추어가네
우리 가정 하나의 발자국소리에

온 나라 가정의 발자국소리
날마다 합치면 모두 합치면
내 조국은 얼마나 큰 자욱 짙을가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달리는
조국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발자국소리 발자국소리 ……

— 심복실, <발자국소리> 부분³⁶⁾

시적 화자인 여성은 일상 삶에서 가족을 둘러싼 “발자국소리”를 듣는다. 공장에서 서둘러 돌아와 음식을 장만하고 있을 때 귀를 기울이면 “정다운 발자국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사랑스러운 아들의 발자국 소리이다. 애 아버지가 늦어 걱정 중일 때 “빠른 발걸음”이 들린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는 기쁨의 발자국 소리이다. 일상에서 느끼는 작고 소소한 “발자국소리”에 화자는 행복감으로 충만해진다. 그리고 이런 작은 발자국 소리가 모두 모이면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36) 심복실, <발자국소리>, 『조선문학』, 제7호(2012).

달리는/조국의 숨결”이 된다. 개인의 작은 행복을 만드는 발자국이 국가라는 거시적 공간을 채움으로써, 김정은의 ‘발걸음’ 또는 ‘발자국’은 전 국가로 확대되는 것이다.

발걸음 이미지는 김정은의 상징으로 집중되는 동시에 혁명혈통, 후계의 정당성을 내포하는 이미지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2012년에는 인민과의 결속을 위한 단결의 이미지로 형상화되면서 일상의 작은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후계구도를 위한 예비작업의 하나였던 발걸음 이미지는 이제 김정은 체제의 핵심적인 이미지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3. ‘청춘세대’와 ‘젊음’과 ‘열정’의 이미지

김일성 - 김정일이 아버지 이미지를 통해 인민과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해나갔다면, 김정은은 초기에는 아버지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전유하지만 이후 자신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나간다. 젊은 김정은의 이미지가 국가의 이미지로 연계되어 젊고 밝은 미래를 표상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년 세대와의 교감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청년 김일성 이미지의 전유는 기성세대의 향수를 자극한다. ‘아버지’ 이미지보다 김정은의 젊은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은 새로운 선전 전략이다.

외부 세계에서 김정은 체제를 불안하게 보았던 이유 중 하나는 김정은의 ‘젊음’ 때문이었다. 어린 나이와 짧은 후계기간, 부족한 경험은 김정은 체제를 위태롭게 바라보게 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이를 역이용해³⁷⁾ 젊고 힘찬 국가 이미지로 전환시켰다. 북한 남성들에게 인기 있는 김정은식 헤어스타일을 ‘청춘머리’, ‘패기머리’

라 부르는 것을 보면, 김정은의 젊은 이미지에 ‘야망’이나 ‘패기’와 같은 진취적인 미래적 비전을 결합하는 것이 아버지의 자애로움을 결합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음과 열정이 빗발치는

광휘로운 태양의 그 인품

세계의 한끝까지 꿰뚫어보시는

영채로운 그 안광

… (중략) …

아, 사랑의 태양 김정은 동지의 모습에서

인민은 맡기고 살 자기 운명의 래일을 보았거니

— 김재원, <조선의 해돋이> 부분³⁸⁾

이 시에서 김정은은 “아침해”로 표상되며, 활기찬 젊음의 시간대로 표현된다. ‘아침’이 주는 생동감과 약진감은 젊음의 이미지와 함께 ‘건강함’을 내포한다. 김정일 사망 전에는 김정일의 건강을 축원하고 기원하는 문구가 많았다면, 김정은 체제에서는 그야말로 약동하는 젊음과 열정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김정은을 표현하는 ‘아침해’는 또한 ‘희망’의 상징이다. 새로운 체제에 대한 낙관적 비전과 젊은 최고 지도자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상징인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김정일의 유훈 계승에 의지하면서 동시에 젊은 김일성의 이미지를 전유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37) 벨푸어(Balfour)가 범주화한 다섯 가지 프로파간다 중에서 ‘역프로파간다’에 해당한다.

38) 김재원, <조선의 해돋이>, 『조선문학』, 제4호(2012).

그 음성 심장에 매아리쳐 울릴 때
우리는 추억 아닌 현실로 보고 들었다
조국개선연설을 하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에 영광을 안겨주시던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 정영갑, <위대한 태양의 축복> 부분³⁹⁾

막연하게 “수령님 모습 장군님 모습으로/우리 청산리벌을 찾아주실 것만 같아”⁴⁰⁾ 보이던 김정은은 이제 구체적으로 개선 연설을 하던 젊은 김일성의 이미지와 겹쳐진다. 특히 4월 열병식에서의 연설은 김일성을 구체적으로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한 이미지를 창출해냈다. 젊은 최고사령관 김정은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젊디젊으신 우리 수령님/그날의 그 모습처럼”으로 비치고, 그의 활력에 찬행보는 “열정에 넘치신 우리 장군님 그날의 모습처럼”⁴¹⁾ 보인다. 김정은과 김일성의 이미지가 중첩되는 부분은 ‘젊음’이며, 김정은과 김정일의 공통분모는 ‘열정’이다. 젊음과 열정은 김정은 통치의 정당성, 후계의 당위성 등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젊고 활력에 찬 국가 이미지의 확대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해빛 넘친 창가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무한한 행복에 미소 짓는

39) 정영갑, <위대한 태양의 축복>, 『조선문학』, 제5호(2012).

40) 심재훈, <청산리농장원들 별로 나간다>, 『조선문학』, 제3호(2012).

41) 조광철, <우리의 최고사령관>, 『조선문학』, 제8호(2012).

젊은 녀인의 그 밝은 얼굴

유보도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청년대학생의 열정 넘친 저 눈빛
공장을 나선 청춘들의
활기에 넘친 힘찬 발걸음
얼마나 환희로운 모습들인가

— 리명근, <사랑의 절정> 부분⁴²⁾

젊은 지도자와 함께 걷는 새로운 시대는 “젊은 녀인의 밝은 얼굴”, “청년대학생의 열정”, “청춘들의 활기에 넘친 발걸음”으로 표상되며 밝고 생기에 넘친다. 젊음과 열정, 밝음과 활기의 이미지는 김정일 사후 북한에 드리워진 불안의 징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지도자의 교체는 당면한 경제적 문제와 함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젊음과 활기의 이미지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수사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청년 김일성과 젊은 이미지로서의 현재는 미래를 긍정할 요소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지도자에서 세대의 일꾼으로 더 나아가 나이든 세대가 젊음을 전유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젊은 지도자의 부상은 노장년층이 미래를 전망하는 시에서 이미 ‘젊음’ 내지 ‘청춘’으로 재생하는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이다.

오, 세월은 나를 싣고

42) 리명근, <사랑의 절정>, 『조선문학』, 제4호(2012).

청춘에서 백발로 왔건만
물미끄럼대여 너는 나를 신고
백발에서 청춘으로 가는구나

우리 장군님 또다시 찾아오시여
청춘으로 젊어진 나의 모습 우리 모습
보시였으면

— 정두국, <사랑의 하늘 은정의 바다> 부분⁴³⁾

노교수인 시적 화자는 수영관의 ‘물미끄럼대’를 통해 오늘날의 생활의 변화를 느끼고 자신이 백발노인에서 청춘으로 돌아간다고 느낀다. 일련의 시에서 포착하는 현재는 오직 희망과 밝음, 젊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 그 어떤 불안의 요소도 포착되지 않는다. 불안과 걱정의 완전한 배제는 오히려 시가 그려내는 현실의 리얼리티를 의심스럽게 한다. 이 시에서 젊음과 청춘의 회복을 노래하게 하는 대상은 ‘물미끄럼대’이다. 수영장의 놀이 시설은 필수적인 생활의 요소와 거리가 멀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거대 건축에 집중되었던 이전의 지도자와 변별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새로운 지도자를 비롯해 전 세대, 전 국가적 차원으로 수식되는 청춘 또는 젊음의 지향은 때로 미래를 담당할 ‘꼬마들’을 호명하기도 한다.⁴⁴⁾ 어린 소년을 호명하는 다음의 시를 보자.

43) 정두국, <사랑의 하늘 은정의 바다>, 『조선문학』, 제3호(2012).

44) 전승일, <너희들의 공원은 백배로 아름다워질거다>, 『조선문학』, 제3호(2012) 참조.

그렇다 내 아들이

너는 립산마을분교 15명 학생 중 하나여도

너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소년단원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천만배의 충정으로 보답해야 할

선군조선의 나아린 소년혁명가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미래의 주인

— 박상민, <축복받은 아들에게> 부분⁴⁵⁾

위의 시에서 어린 아들은 ‘소년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시적 화자가 소년단원으로 호명하는 아들은 ‘립산마을분교’ 15명 중의 하나지만, 온 나라가 다 안다. 소년단원으로 호명된 아들은 김정은의 사랑과 믿음을 ‘천만배의 충정’으로 보답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왜냐하면 소년단원은 “선군조선의 나아린 소년혁명가”이자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시대의 문학 담론이 지도자 동상과 대기념비와 혁명 사적지, 고속도로와 발전소, 공장과 기업체 등 거대한 사회시설을 건설했을 때 감격의 기념시를 헌정하는 데 바쳐졌다면, 김정은은 미래를 담보할 어린이, 학생, 청년들에게 실생활의 질적 향상같이 피부에 와 닿는 미시 담론에 호소하는 셈이다.⁴⁶⁾ ‘아름다운 미래’인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아동백화집이나 놀이터, 유치원 생활 등과 같이 이전의 거대 담론에서 배제되었던 요소에 김정은이 사랑과 헌신을 쏟는 모습으로 형상

45) 박상민, <축복받은 아들에게>, 『조선문학』, 제8호(2012).

46) 김성수, “김정은 시대 초의 북한문학 동향,” 『민족문학사연구』, 제50호(2012), 509쪽.

화되기도 한다.⁴⁷⁾

그러면 김정은 시대를 호위할 세대는 누구인가? 김정일 시대의 새 세대는 “시대의 선구자”로서, “강성대국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높이 떨치는 것”이 과업이었다.⁴⁸⁾ 새 세대는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사회주의 제도가 안정된 환경에서 태어나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와 교육 속에서 성장한 세대이면서, 청소년·청년기에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개혁·개방정책의 실시, 극심한 경제난 등 사회변화의 크고 작은 동인을 겪은 세대라 할 것이다.⁴⁹⁾ 그렇다면 김정일 시대의 새 세대가 김정은 체제를 호위할 세대가 되는가? 새 세대를 짐작하게 하는 다음 시를 보자.

누구는 당원이 되고 기능공이 되고

누구는 군관이 되고 영웅이 되고……

역척의 기동들이 되어 우뚝우뚝 솟아오른

젊은 우리 또래들에 대하여

— 김정삼, <우리 세대> 부분, 련시<제강소여 너와 함께> 중⁵⁰⁾

위의 시는 야금기지에서 성장한 ‘젊은 우리 또래’이자 ‘새 세대’의 형상을 보여준다. 당원, 기능공, 군관, 영웅이 되어 사회의 주축으로서

47) 백하, <아름다운 미래>, 『조선문학』, 제10호(2012), 12쪽; 백하, <미래의 문을 여시다>, 『조선문학』, 제11호(2012), 6쪽; 박현철, <아들아 너는 크다>, 『조선문학』, 제12호(2012), 37쪽 참조.

48)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6), 14쪽.

49)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2012), 75쪽.

50) 김정삼, <우리 세대>, 련시<제강소여 너와 함께>, 『조선문학』, 제5호(2012).

우뚝 솟은 그들은 김정일 시대의 건설의 선봉대이자 돌격대였다. 기성 세대가 된 이들은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어느덧 나이를 먹어 젊은이의 흔적은 마음속 열정으로만 남은 세대가 되었다. 즉 선군시대의 기치였던 강성대국 건설의 참전자로서 열정이 끓었던 새 세대는 “다 큰 자식들”이 있는 중장년층이 된, “경험도 쌓을 만큼 쌓은 나이”⁵¹⁾가 된 것이다. 이들은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세대이지, 김정은 시대의 신세대가 될 수는 없다.

혁명의 세대교체는 지도자의 세대교체뿐만 아니라 호위부대의 세대교체를 수반한다. 김정은 시대를 담당할 세대는 청년들이라 할 수 있다. 청년 세대는 “우리 혁명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요구”⁵²⁾에 따른 것이다. 김정일을 지지한 ‘3대혁명소조’의 역할은 김정은 시대에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담당할 것이다. 김정은이 소년단 및 청년절 행사를 중요시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김정은 시대가 이전의 세대를 도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주요 세력이 된 이전의 새 세대들은 여전히 김정은 시대의 중요 동력인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창조물에서 “청춘시절의 땀젖은 자욱들”을 발견하고, “장군님 기억하시고” “김정은 동지께서/시대 앞에 내세워 빛내주시는”⁵³⁾ 것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전의 ‘새 세대’와 변별되는 김정은 시대의 새 세대는 누구인가? 그들은 ‘청춘’으로 호명되는 세대이다. ‘청춘 세대’로 명시되기 전에는 젊은 남녀, 신혼부부의 모습 등으로 그려져 세대교체를 형상화

51) 김철혁, <나의 벗들에게> 부분, 『조선문학』, 제8호(2009).

52) 김순림,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형상의 대를 바로 세우자,” 『조선문학』, 제12호(2010), 77쪽.

53) 리계주, <청춘시절 추억> 부분, 『조선문학』, 제8호(2012).

하곤 했다. 혹은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의 주역이 될 더 어린 계층이 호명되는 경우도 다수 등장한다. 젊은 남녀의 낭만적 사랑을 통한 낙관적 전망의 제시는 사실 이 시기의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다. 북한 체제가 정착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국가의 동량으로서 국가 재건에 앞장 선 젊은이들은 언제나 문학의 단골 주인공들이었다. 이전의 젊은이와 다른 점이라면, 자신의 영역에서 ‘과학’과 ‘기술’, ‘지식’을 통해 자아를 성취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젊은 청년들의 모습은 연애서사를 전경화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위명철의 <달이 알아 별이 알아>⁵⁴⁾는 청산벌의 “모내는 기계 운전공 처녀”와 “뜨락또르공장 조립공 총각”이 등장한다. 시에는 “별에는 모내는기계 뜨락또르동음 우렁차고/공장의 마음 언제나 별에 잇대고사는 마음/그 마음이 펼쳐진 봄밤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처녀와 총각의 직업은 각각 농촌에서의 기술과 과학을 보여준다. 지식경제, 최첨단 과학기술은 농촌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모내기를 ‘기계’로 대체하고, 그러한 기계를 조립하는 공장은 ‘과학기술’의 산실이 되는 것이다. 경제적 쇄신,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건설할 계층은 젊은이들이고, 그들은 첨단, 기술, 과학 등의 키워드를 내재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새로운 국가 체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하는 젊은 국가의 이미지는 ‘청춘’의 힘과 활력으로 표상된다. 그리고 ‘젊음’은 국가의 재건, 경제적 쇄신을 이끌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젊은 세대는 ‘청춘대오’, ‘청춘세대’로 호명되면서 김정은 시대를 이끌 후비대로 명명된다. 다음의 시를 보자.

54) 위명철, <달이 알아 별이 알아>, 『조선문학』, 제5호(2012).

조선의 청춘은 이미
강성할 래일의 계주봉을 튼튼히 잡았거니

용감하라 청춘!
돌진하라 청춘!
백두산위인들 손길아래 자라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 뉘으로 지너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의 청춘대오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가를 웨친다

— 최주원,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청춘> 부분⁵⁵⁾

청춘들이 있는 곳엔
타올라야 할 화불
화불이 타오르는 곳엔
빛내여야 할 청춘이 있어
청춘과 화불은 영원한 길동무

— 박세일, <청춘과 화불> 부분⁵⁶⁾

새로운 시대를 떠받치는 신세대는 “청춘대오”이다. 그들은 “혁명선배들 걸어온 성스런 길”을 이어 “강성할 래일의 계주봉을 튼튼히” 잡은 세대이며, “백두산 위인들의 손길 아래 자라/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 뉘으로 지너” 새로운 시대의 진군가를 울리는 세대이다.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 이미지에서 젊음과 열정을 전유한 것처럼 젊은이들

55) 최주원,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청춘>, 『조선문학』, 제8호(2012).

56) 박세일, <청춘과 화불>, 『조선문학』, 제8호(2012).

은 ‘화불’과 같은 정열을 지는 ‘청춘’이자 능동적인 힘의 소유자로 그려진다. ‘화불’이자 ‘청춘’은 “수령님 장군님 안겨주신 조선의 힘과 기상”⁵⁷⁾으로 미래를 단단히 견인할 힘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한생을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온
할아버지 아버지세대의 녀이 스민 고향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주인들이다
쌀로써 당을 굳건히 받들어갈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충직한 전우들이다

훌륭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 누리게 하겠다 하신
그이의 뜻을 우리 남 먼저 꽃피우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무슨 청년분조원들이나

— 리영일, <포전의 우등불야회> 부분⁵⁸⁾

언제를 건설하는 인재들은 선군시대의 새 세대와 함께 청년돌격대들이고 이들은 ‘청춘’ 세대이다.⁵⁹⁾ 이런 건설의 주역들은 김정은 결사옹위 세력으로 자랄 것이다. 김일성-김정일을 대를 이어 결사옹위했듯이 청춘 세대는 앞 세대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을 결사옹위할 “충직한 전우들”이며, “이 땅의 주인들”이기 때문이다.

시에서 호명된 청춘은 국가 재건 내지 체제 안정을 위한 토대로서

57) 위의 글.

58) 리영일, <포전의 우등불야회>, 『조선문학』, 제8호(2012).

59) 주경, <청춘의 언제>, 『조선문학』, 제8호(2012).

취급되며 집합적 성향으로만 시에 도입된다. 혼련과 성숙을 통한 젊은이의 준비기간은 생략되어 있으며, 전체주의적 헌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체제의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청년의 미덕은 김정은의 ‘충직한 전우’로서 발휘되며, 열정적 에너지로 표상되는 젊은 세대들의 행위와 말, 사고는 체제와 융합할 때만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집단으로 표상된 청년대오는 천리마기수, 3대혁명소조, 새 세대의 공적이고 영웅적인 형식들을 전유한다. 이는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하나로 보고 전체로 통합한 형태이자, 젊은 국가와 젊은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와 연계된 형태로 제시된 유형이다. 그리고 새로운 청년 세대가 향하는 목표점은 ‘강성국가’이자 “훌륭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사회주의부귀영화 누리게 하겠다 하신 그이의 뜻”이다. 청년 세대가 강력한 재건의 동력이 되려면 김정은은 이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뢰는 의미 있는 결과를 지향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감정이다. 무엇이 기대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확인하는 순간 과거와 미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⁰⁾ 김정은이 청년세대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강성국가 건설의 원동력인 신뢰가 행위의 토대이기 때문이지만, 신뢰가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무하는 확실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⁶¹⁾

마지막으로 다시 서론에서 언급한 그림으로 돌아가보자. 그림 속 젊은이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응시하고 있다. 김정은의 해외 체류가

60)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사회체계이론 2』(과주: 한길사, 2007), 98쪽.

61) J. M. 바바렛(Jack Barbalet), 『감정의 거시사회학』, 박형신·정수남 옮김(서울: 일신사, 2007), 149쪽.

김정은 체제 신화로 적극 편입된다면 그것은 김정은 이야기의 핵이 될 것이다.⁶²⁾ 김정은의 젊음은 국가 재건의 에너지가 될 것이고, 해외 체류는 동도서기의 통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의 변화를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북한이 국가 재건을 위해 개혁·개방을 모색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청년 세대는 새로운 기수가 되어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할 수도 있다.

김일성의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은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는’ 미래가 되었다. 김정은 시대의 현재는 과거의 비전과 미래의 꿈 사이에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화두는 지극히 단순하다. 김일성의 ‘의식주’에 대한 비전이 김정은에게 ‘식(食)’의 절박함으로 축소되었다. 그렇기에 식량문제 해결 같은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와 전망의 실천을 통해 미래를 현재화하는 데 김정은의 과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문학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지점에 김정은의 신화 쓰기가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이 글은 김정은 시대에 발표된 서정시들을 고찰해왔다. 우선 김정은의 외연이라 할 수 있는 ‘발걸음’ 이미지가 어떻게 집중되고 확장되는지 고찰하였으며, 다음으로 김정은의 젊음과 청년의 이미지가 어떻게 청년세대를 호명하여 혁명의 세대교체를 문맥화하는지 살펴보았다.

62) Ruediger Frank, “Harbinger or Hoax: A First Painting of Kim Jong Un?,” *38North*, Dec. 8, 2010.

생각의 방식을 조직화하는 언어는 사회적 관례에 따라 사용되면서 생산과 해석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2009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발걸음> 노래는 김정은 신화 제작의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자연스럽게 인민 대중 사이에 스며든 <발걸음> 노래와 이미지는 집중적으로는 김정은을 상징하는 지표가 되었다. 반면에 발걸음 이미지의 변주와 길의 중첩은 혁명혈통의 연대기로 구성되면서 후계 구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이미지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발걸음 이미지의 확장은 통시적으로는 혁명 역사의 축과 융합하지만, 공시적으로는 혁명적 동지애나 일심단결로 표상되었다. 그리고 발걸음 이미지는 일상의 작고 소소한 영역으로 삼투됨으로써 전 국가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김일성 - 김정일이 아버지 이미지로 정서적 유대를 강화해왔다면, 김정은은 젊음과 열정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최고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문학예술이 선택한 이미지는 청년 김일성 이미지의 전유였다. 젊음과 청춘의 활력은 김일성에게, 열정은 김정일에게 의존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대 지도자와의 연대와 동일시를 통해 체제 전환의 불안을 은폐하고 안정적이면서 공적인 승인을 이끌고자 한 이미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젊음과 청춘의 이미지는 김정일 시대의 새 세대가 아닌 ‘청춘’ 세대를 호명하는 것으로 표상되었다. 북한이 경제적 쇄신과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담론의 핵심은 과학, 기술, 지식이며 이를 내재한 이들이 청춘세대인 것이다. 청춘은 국가 재건과 체제 안정을 위한 동력이자 집합으로서만 호명된다. 그들의 미덕은 김정은의 충직한 전우로서만 발휘될 뿐 새로운 시대의 창조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청춘은 천리마기수, 3대혁명조소, 새 세대의 공적이고 영웅적인 형식들을 오미주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김일성의 의식주 비전과 영웅 담론은 아직도 김정은의 화두로 자리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과거, 신화를 쓰기 위한 역사는 북한 문학 생산의 궤도를 여전히 맴돌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낙관적 비전 제시라는 사회주의 문학의 오랜 강령은 발걸음 이미지가 담당하고, 비전의 실천은 청춘의 젊음과 열정이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접수: 2월 28일 / 수정: 3월 27일 / 채택: 3월 29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문예상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조선문학』.

2) 논문

“당창건 65돐을 뜻 깊게 맞는 자랑 안고 선군시대 문학작품창작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자,” 『조선문학』, 제10호(2010).

권선철, “<발걸음>의 메아리는 우렁차고 환희롭다,” 『조선문학』, 제6호(2012).

김려숙, “피끓는 심장으로 선군혁명문학의 새로운 포성을 울리자,” 『조선문학』, 제3호(2012).

김순림,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형상의 대를 바로 세우자,” 『조선문학』, 제12호(2010).

3) 신문

“김철의 호소 따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총진군 앞으로!,” 『로동신문』, 2010년 1월 12일.

“(정론)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로동신문』, 2012년 1월 21일.

“팔을 끼고 어깨 견고,” 『로동신문』, 2012년 4월 10일.

한충혁, “찬란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보여주는 명곡 노래 <발걸음>을 부르며,” 『로동신문』, 2012년 2월 19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강태희, 『현대미술의 또 다른 지평』(서울: 시공사, 2000).

-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초상화 초본』(서울: 열린박물관, 2007).
- 루만, 니클라스(Niklas Luhmann), 『사회체계이론 2』(과주: 한길사, 2007).
- 르블, 올리비에(Olivier Reboul), 『언어와 이데올로기』, 홍재성·권오룡 옮김(서울: 역사비평사, 2003).
- 바바렛, J. M.(Jack Barbalet), 『감정의 거시사회학』, 박형신·정수남 옮김(서울: 일신사, 2007).
- 바흐친, 미하일(Mikhail Bakhtin),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외 옮김(과주: 창작과비평사, 1998).
- 임순희, 『북한 세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오쇼네시, 니콜라스 잭슨(Nicholas Jackson O'Shaughnessy), 『대중을 유혹하는 무기 정치와 프로파간다』, 박순석 옮김(서울: 한울, 2009).

2) 논문

-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2012).
- 김성수, “김정은 시대 초의 북한문학 동향,” 『민족문학사연구』, 제50호(2012).
-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2012).
- 이지순, “북한 서사시의 김정은 후계 선전 양상,”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2012).

3) 신문

- 『조선일보』, 2011년 9월 22일.

3. 국외 자료

- Foulkes, A. P., *Literature and Propaganda*(New York: Methuen, 1983).
- MacKinnon, Mark, “North Korea’s Kim Jong-un: Portrait of a leader in the making,” *the Globe and Mail*, Dec. 8, 2010.
- Fairclough, Norman, *Language and Power*(London: Longman, 1989).

Frank, Ruediger, “Harbinger or Hoax: A First Painting of Kim Jong Un?,”
38North(Dec. 8, 2010).

A Study on the Image Shown in North Korean Poetry During Kim Jong-un's Regime

Yee, Jisun(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paper deals with the images on North Korean poetry during the recent years, Kim Jeong-un's regim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images of footsteps converge and spread in the poetry and how the images of youth and passion are addressed from the context in the generation shift.

The song and the image of "footstep" that has infused the public symbolizes Kim Jong-un intensively. These overlap the image of other road and compose the chronicle of the revolution lineage. The footstep image which supports successor's legality combines memorization of revolutionary history and represents as comradeship and one flesh, and what's more, those images permeating through everyday lives enlarge in the country as a whole. The images of youth and passion represent Kim Jong-un as young Kim Il-sung. That is the tactic of the image

which covers up anxiety over the regime shift and obtain public approval of 3rd generation power succession through imageable identification with previous leader. The youth generation who looks like cheollima(swift horse) movement leader or three revolutionary teams is heroic image, but the difference is the core of the discourse that sets a high value on science, technology, knowledge.

A series of images affect linguistic habits and interpretation and then function as the field of propaganda reproducing ideology.

Keywords: North Korean poetry, footsteps, the youth generation, passion,
image